

유공 언론인 추모사업

1) 서재필 박사 동상 건립 및 유해 봉환

송재 서재필(松齋 徐載弼) 박사 동상 제막식이 1990년 4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거행됐다.

서재필 박사 동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을 창간, 한국언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독립정신 고취에 크게 기여한 공을 기리기 위해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회관 관훈클럽 등 주요 언론단체가 중심이 돼 건립케 됐다. 동상은 높이 8미터 25센티의 입상으로 오른손에 독립신문을 맡아서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며 3미터 25센티의 화강석 좌대 위에 세워졌다.

서재필 박사 동상은 1957년 당시 신문편집인협회 초대 회장이었던 이관구(李寬九) 선생을 주축으로 논의되었으나 빛을 보지 못했다. 또 1979년 8월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각 언론단체 대표들로 발기인회를 구성, 신문협회가 맡아 추진키로 결정했으나 역시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02년 4월 4일 오전 11시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서재필기념회(이사장 권오기) 주최로 송재 서재필박사 어록비를 제막했다.

어록비 전면에는 “합하면 조선이 살테고 만일 나뉘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요...”

로 시작되는 76자의 글이 새겨졌다. 이 글은 서 박사가 미국에서 육성 녹음해 1949년 3·1운동 3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공개된 연설문 ‘조선동포에게 고함’의 일부이다.

한편 미국에서 생을 마감한 서재필 박사 유해는 1994년 4월 8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고 한국신문협회가 후원하는 가운데 봉환돼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다.

다음은 서재필 박사 동상건립위원회 명단과 성금 내역이다.

◇ 동상건립위원회

△고문=李寬九 洪鍾仁 崔錫采 金光涉 △위원장=徐基源(신문협회 회장) △부위원장=徐英勳(방송협회 회장)△위원=魯香基(기자협회 회장) 安炳璿(관훈클럽 총무) 권영길(전국언론노조 위원장)△감사=李禹世(언론회관 이사장)△사무국장=金振贊(신문협회 사무국장)△자문위원=潘永煥(서울신문 주간국장)

◇ 동상건립실무위원회

△위원=金振贊(신문협회 사무국장) 金慶鎔(방송협회 사무국장) 金千洙(편집인협회 사무국장)金國衡(기자협회 사무국장) 孫宜奎(신문협회 사무차장)

◇ 성금

△한국신문협회 회원사=1억2천4백만원 △한국방송협회 회원사=5천만원 △한국신문편집인협회=2백73만5천원 △한국기자협회=1백만원 △대한언론인회=2백35만5천원 △조선호텔 서재필룸=75만1천원 등이다.

2) 최석채 선생 추모문집 발간 및 추모비 건립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992년 4월 11일 오후 2시 경북 금릉군 조마면 고 최석채(崔

錫采) 선생 묘소에서 1주기를 맞아 추모비 제막과 추모문집 봉정식을 가졌다. 또 4월 17일 오후 7시에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몽양 최석채선생 추모문집 ‘지성감민(至誠感民)’ ‘낙동강 오리알’ 발간기념회를 거행했다. ‘至誠感民’은 최선생이 생전에 쓰신 글을 엮은 것이고, ‘낙동강 오리알’은 친지 동료 후학들이 최선생을 기리기 위해 기고한 글을 모은 것이다.

11일 추모비 제막식과 추모문집 봉정식엔 장지분(張志粉)여사 등 유가족과, 김진현(金鎭炫)과기처장관 신동호(申東濤)서울언론재단이사장 신우식(申禹植)서울신문 사장 한중우(韓鍾愚)성곡언론재단이사장 이환의(李桓儀) 전 문화방송-경향신문 사장 박근숙(朴瑾淑) 문화방송사우회장 안덕환(安德煥) 대구매일 전무 등 각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17일 열린 추모문집 발간 기념회에는 정주영(鄭周永)국민당대표 민관식(閔寬植)고흥문(高興門)씨 김용태(金瑑泰) 민자당 정책위의장 이수정(李秀正)문화 김진현(金鎭炫)과기처 최병렬(崔秉烈)노동 최창윤(崔昌潤)공보처장관 방우영(方又榮)조선 김병관(金炳管)동아 신우식(申禹植)서울 최종률(崔鍾律)경향 호영진(扈英珍)한국경제사장 유건호(柳建浩) 이우세(李禹世) 조두흠(曹斗欽) 전 편집회장 박권상(朴權相) 김은호(金殷鎬) 문인구(文人龜)씨 등 각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안병훈(安秉勳)편집회장은 두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몽양선생은 50년대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으신 이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격동의 민족사를 정론직필로 밝혀준 우리 언론계 최후의 대논객이었다”면서 “이번 추모비 건립과 추모문집 발간은 고인의 뜻을 본받고 이를 후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후배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편협은 앞서 최석채 선생의 친지 동료 후배언론인들로부터 추모사업을 주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안병훈(安秉勳) 윤임술(尹任述) 문장인(文莊寅) 이종식(李鍾植) 정진석(鄭晉錫) 위호인(魏皓寅)씨 등을 위원으로 한 최석채선생추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개인 1백8명과 16개 단체로부터 총 4천40만원의 성금을 기부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추모비 건립은 文莊寅씨가, 추모문집 발간과 추모비문 작

성은 한국외국어대 신방과 鄭晋錫교수가 맡았다.

편협은 또 1991년 4월 15일 오전 8시 서울 은평구 응암동 고 崔錫采선생 자택에서 첫 한국신문편집인협회葬으로 영결식을 가졌다. 영결식은 묵념, 육성녹음 청취, 安德煥 대구매일 전무의 약력보고, 安秉勳 한국편집인협회회장의 추도사, 李桓儀 전 문화방송-경향신문 사장의 조사, 조영서(曹永瑞)시인의 조시낭독, 헌화 분향의 순서로 40분 동안 진행됐다.

安秉勳 편협회장은 추도사에서 “한 평생을 시세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대쪽처럼 굳게 사신 최선생의 명쾌하고도 함축성있는 경구와 충고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영결식에는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 方又榮조선일보사장, 편협의 柳建浩 李禹世 權五琦 曹斗欽 등 전 회장, 남시욱(南時旭) 부회장, 申東濼스포츠조선 사장, 언론계 출신인 남재희(南載熙) 金瑢泰 李鍾植 등 전 현직 국회의원, 崔秉烈노동, 尹胄榮 전 문공 등 전현직장관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3) 홍종인 선생 추모사업

편협은 1999년 6월 10일 경기도 용인공원묘지에서 고 홍종인(洪鍾仁)선생(1903~1998) 1주기 추모식 및 추모비 제막식을 가졌다. 또 추모문집인 ‘대기자 홍박’을 LG상남언론재단을 통해 발간했다.

남중구(南仲九) 편협회장은 제막식사에서 “세상이 어지럽고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질타하시던 모습이 새삼스럽다”며 “생전의 가르침을 새겨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모식에는 오소백(吳蘇白)서울언론인회장 方又榮조선일보회장 이정석(李貞錫) 전 방송개발원이사장 문희성(文熙晟)한국산악회장 홍선생의 장남 淳京씨 등 유족과 지인 70여명이 참석했다.

홍종인 선생은 1925년 시대일보 평양지국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한 후 중외일보를 거쳐 조선일보 편집국장, 주필, 부사장, 회장, 동화통신 회장 중앙일보 고문을 지냈다. 편협 창립 발기인 및 집행위원, 초대와 3대 운영위원장과 고문을 역임했다.

홍종인 선생은 1998년 6월 10일 오후 8시 별세했으며, 영결식은 14일 오전 9시 서울 강남 삼성의료원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으로 엄수됐다.

성병욱 편집회장은 추도사에서 “선생님은 신문사를 떠나시고 난 뒤에도 만년 일선기자임을 자처하셨다”면서 “선생님은 가고 없으시지만 선생님의 신문사랑은 후배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영결식에는 성병욱 편집회장을 비롯 방우영조선일보회장 신동호 스포츠조선사장 안병훈 조선일보 전무 최병렬 남재희 전국회의원 정진석 한국외국어대교수 손주환 전 서울신문사장 조성부 한국기자협회회장 등 언론계 학계 정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4) 유건호 선생 편집인葬

고 유건호선생의 영결식은 1998년 9월 4일 오전 9시 서울 강남 삼성의료원에서 유족과 언론계 선후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으로 엄수됐다. 유건호 선생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5대회장을 역임했다. 1973년부터 1982년까지 10년간 회장을 맡아 역대 최장수를 기록했다.

성병욱 편집회장은 추도사에서 “선생의 고매한 인격과 올곧은 언론인의 일생을 후배들의 가슴속에 새기겠다”며 40여년간 한눈 팔지 않고 언론의 길을 걸어온 고인의 뜻을 기렸다. 신동호 스포츠조선사장은 조사를 통해 “유선배님은 우리들의 사표이자 기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큰 형님이었다”며 “언론인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후배 언론인들에게 심어주시고 가셨다”고 애도했다.

영결식에는 성희장과 윤주영 전문공장관 윤임술 전부산일보사장 이정석 방송개

발원이사장 김용원 전대우전자사장 김성열 전동아일보사장 홍일해 전연합통신전무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정광현 조광인쇄사장 호영진 전한국경제사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5) 원경수 선생 10주기 추모 문집발간

동계 원경수(東溪 元瓊洙)선생의 10주기(1990년 8월 31일)를 맞아 추모 문집이 발간됐다. 동계 선생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제4대 회장을 지냈다.

추모 문집은 동계 선생과 가까웠던 각계의 동료 및 후배들의 글을 모은 것이다.

추모 문집 발간과 추도식을 위해 최석채(崔錫采) 전 문화방송-경향신문회장, 윤주영(尹胄榮) 전 문공부장관, 윤임술(尹任述) 전 부산일보사장, 김진현(金鎭炫) 동아일보 상무 겸 논설주간, 조두흠(趙斗欽) 편협회장, 김진배(金珍培) 전 의원, 윤익한(尹益漢) 코리아헤럴드 상무 갈천문(葛天文) 연합통신편집 상무 등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동계 선생은 1938년 연희전문을 졸업하던 해 동맹통신 기자로 출발해 평생을 언론계에 몸담았으며 동양통신 편집국장, 상무를 거쳐 대한공론사(코리아헤럴드) 이 사장을 지냈다.

6) 배설(Ernest T.Bethell) 묘비개수

배설(裨說)선생의 묘비명 복원은 협회가 창립된 후 첫 사업이었다. 1964년 4월 6일 많은 언론인과 고드프리 주한영국대사 및 내외귀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묘비제막식을 양화진 외인묘지에서 거행했다. 새 비문은 김응현(金膺顯)씨가 썼다. 원비(元碑)는 그대로 보존하고 그 오른쪽에 새 비를 세웠다.

裵說선생은 영국인으로서 구한말 대한매일신보를 발행, 우리나라 언론계의 초창기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선생의 묘비는 일제시 일본인에 의해 비문이 전문 삭제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이에 편협은 그 복원을 기획, 63년 9월 28일 운영 보도자유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강영수(姜永壽), 박홍서(朴鴻緒), 엄기형(嚴基衡), 원경수(元瓊洙), 천관우(千寬宇) 등 5명으로 묘비개수준비위원회를 구성,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

준비위원회는 이해 11월 5일 각 상임위원(운영 보도자유 회원심사)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 사업이 언론계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신문발행인협회·통신협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1월 16일 열린 3단체(편협 발행인협회 통신협회) 대표자 회의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사업비를 3단체 외에 전국 신문인들로부터 각출하기로 했다.

7) 초상게시

1964년 4월 28일 편협 운영위원회는 유공 언론인 기념사업의 하나로 우리나라 언론 발전에 공이 많은 분(순직 또는 사망한 분 중)을 선정, 초상화와 업적을 적어 신문회관에 게시하기로 결의했다. 이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강영수(姜永壽), 곽복산(郭福山), 김종규(金鍾圭), 천관우(千寬宇), 최석채(崔錫彩) 등 5명으로 「유공언론인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65년 1월 10일 제1차로 서재필(徐載弼), 장지연(張志淵), 양기탁(梁起鐸) 세 선생과 순직 언론인 장덕준(張德俊), 최병우(崔秉宇) 두 분 등 다섯 분을 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유공 언론인으로 채택했다.

이 사업은 사상게사가 제정한 64년도 「月南문화상」수상 부상금과 재경 각 신문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충당, 이해 4월에 초상화를 완성하여 신문회관 강당에 게시했다. 그리고 이해 4월 5일 제12회 정기총회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을 확정했다.

◇제1회 선정 유공언론인 약력

①徐載弼 號 松齋

1864년 1월 7일생

출생지 충청남도 논산군 구자곡면

1. 1882년 별시 문과(別試 文科) 합격, 교서관(校書館)의 부정자(副正字) 벼슬에 오름.
2. 1883년 5월 일본으로 건너가 慶應義塾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戶山陸軍學校에 입학하여 군사교육을 받은 뒤 1884년 7월 말에 귀국.
3. 1884년 12월 갑신정변에 가담했다가 실패하자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
4. 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컬럼비아 의과대학(오늘의 조지 워싱턴대학교 의대) 졸업.
5. 1895년 12월 말에 귀국하여 한국정부의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됨.
6. 1896년 4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과 영문판 The Independent를 창간.
7. 이해 7월 2일에는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배재학당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동시에 학생회인 협성회(協成會)를 지도.
8. 1898년 3월 반대파의 책동으로 재차 도미.
9. 을미년(乙未年) 「필라델피아」에서 미주한인 자유대회를 소집하고 독립을 선포.
10. 1947년 미군정의 특별의정관으로 귀국하였다가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보고 다시 도미.
11. 1951년 1월 5일 미국서 서거.

②張志淵 號 韋庵

1864년 11월 30일생

출생지 경상북도 상주목 내동면 동곽리

1. 1894년 진사 병과(進士 丙科)에 급제하여 1897년 7월 사례소(史禮所)의 직원(直員)

- 벼슬에 오르고 8월에 내부 주사(內部 主事)를 겸임.
- 2 1899년 1월에 창간된 시사총보(時事叢報)의 주필이 됨.
 3. 1902년 8월 31일 황성(皇城)신문의 사장으로 취임하다.
 4. 1905년 11월 20일 을사보호조약을 반대하는 명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쓴 후 일본 경찰에 체포당함.
 5. 1906년 1월 24일에 석방되어 6월에 조양보(朝陽報)의 편집원이 됨.
 6. 1908년 2월 소련령 블라디보스토크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발행되는 해조(海朝)신문의 주필이 되었으나 5월에 이 신문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자 중국을 거쳐 귀국함
 7. 1908년 10월 진주에서 창간되는 경남일보의 주필로 초빙됨.
 8. 1910년 한일합방후 경남일보에 실린 매천 황현(梅泉 黃玟)의 절명시(絶命詩)로 말미암아 신문이 압수 정간 당함.
 9. 1914년 10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선생을 초빙했으나 거절함.
 10. 1921년 10월 58세를 일기로 서거.

③ 梁起鐸 號 雲岡

1871년 4월 2일생

출생지 평양 서촌 원장

1. 어려서는 서당에 들어가 한학을 배우다가 열다섯살 때 서울로 올라와 한성외국어학교에 입학하여 영어를 배움.
2. 일본 長崎상업학교에서 2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음.
3. 한학자인 아버지 梁時英과 함께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Gale)의 한영사전(A Korean English Dictionary) 편찬을 도와 줌.
4. 궁내부 예식원(宮內府 禮式院)에서 번역관보로 근무.
5. 1904년 노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내한한 영국 Daily Chronicle 특파원 裒說(E.T Bethell)과 함께 대한매일신보와 영문판 Korea Daily News를 창간. 이 신문의 총

무가 되어 제작을 전담. 신문의 항일논조를 주도함.

6. 1907년 초 安昌浩 등과 비밀결사 新民會를 조직, 그 총감독이 되어 항일운동 전개.
7. 한일합방 후, 1911년 1월 일제는 梁起鐸을 비롯하여 이전에 대한매일신보 사원들이었던 林崑正, 玉觀彬 등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여 징역 2년 선고, 이어 이해 9월에는 신민회 회원들을 대량 검거(105인 사건)하여 6년형을 언도.
8. 1915년에 석방되어 이듬해에 만주로 망명.
9. 1919년 天津서 일경에 피체, 고국으로 압송된 후 거제서 제한거주.
10. 1920년 동아일보 편집감독으로 취임.
11. 1921년 내한한 미국의원단에 독립진정서를 냈다가 다시 체포돼 복역중 친상으로 가석방된 틈을 타서 만주로 망명.
12. 1922년에서 1933년 사이에 통의부 정의부(統義府 正義府) 등을 조직하여 무장단체 결성, 활약
13. 1938년 4월 30일 중국栗陽서 68세에 서거.

④ 張德俊 號 秋松(한국 최초의 순직기자)

1892년생.

출생지 황해도 재령군 하호면 고산리.

1. 1909년 사립 기독교소학교 졸업.
2. 1911년 재령 명신중학교 졸업.
3. 1914년부터 1915년까지 평양일일신문사 조선문(朝鮮文) 주간으로 활약.
4.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사에 입사하여 논설반기자겸 조사부장과 통신부장을 역임.
5. 1920년 10월 경성지방에 출장갔다가 간도에 琿春사건 취재 차 중군중 일본군에게 납치되어 살해됨.
6. 1920년 11월 6일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전보를 최후로 순직.

⑤ 崔秉宇(한국 제2의 순직기자)

1924년 5월 19일생.

출생지 전남 목포

1. 일본 東北大學 문학부 재학중 해방.
2. 대한민국 주일대표부와 한국은행 문서과장대리를 거쳐 1952년 조선일보 기자로 입사.
3. 1954년 한국일보사 편집부국장을 역임.
4. 1956년 「관훈클럽」 결성에 참여.
5.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재무로 활약.
6. 1958년 한국일보사 논설위원 겸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 취임.
7. 1958년 인도네시아 반공혁명 현지 취재차 특파.
8. 1958년 자유중국 金門島 보급작전에 중군중. 9월 11일에 부상. 9월 26일 제3차 金門島작전에 중군하였다가 상륙용 주정(舟艇) 침몰로 순직.